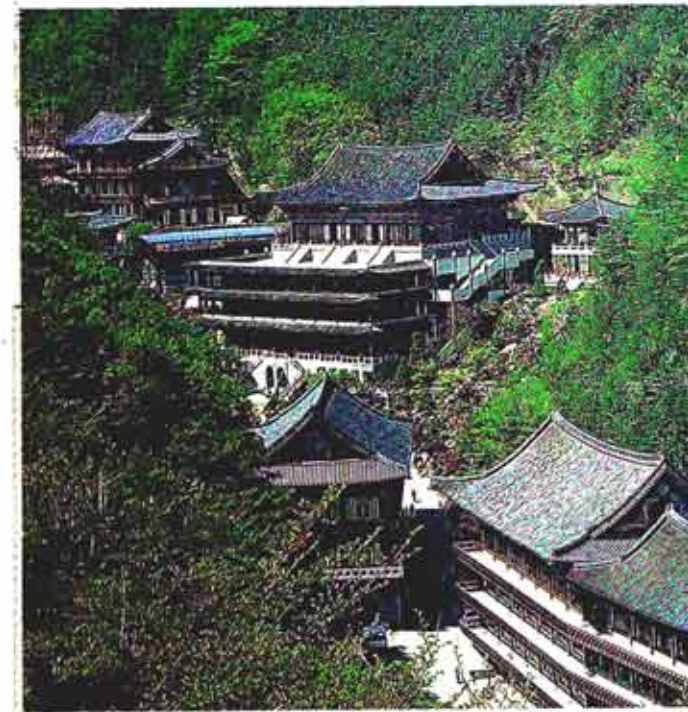


골마다 절마다 의상대사 체취



◇한 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장쾌한 회방폭포.



◇연꽃잎같은 봉우리를 한가운데 지리한 천태종 흥분산 구인사.



소백산

월 1회 연재

백두대간 숨결 듣는다

→ 5 ←

백두산에서 힘차게 뿜어나온 백두대간이 동해안을 끼고 거침없이 내려오다가 내륙으로 방향을 튼 첫머리에 소백산이 있다. 소백산은 가장 높은 비로봉(1439m)을 중심으로 연화봉, 국망봉, 도솔봉 등 1천m가 넘는 절충한 봉우리가 어우러진 넓은 품을 자랑한다. 동성 너머 북쪽으로는 남한강 원류를 이루며 단양팔경을 품어 안았고, 남쪽으로는 내성천 계곡형(하늘재)에 이어 단양팔경을 적시며, 낙동강의 물집을 불러주고 있다. 문경의 계림형(하늘재)에 이어 덕인 폭령은 충북과 경북을 잇는 길목으로서의 구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수용, 사회시켜 문화발전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극락으로 가는 돌계단

소백산 자락 곳곳에서는 의상대사(625~702)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도량이 많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갈라지는 봉황산 아래에 자리한 화엄종찰 부석사를 비롯 문수산 중턱의 죽서사, 비로봉

을 보려면 걸어 올라가야만 한다. 일주문에서 무량수전에 오르는 길은 산중턱을 깎아 수많은 계단과 돌출대로 이뤄져 있다. 죽대는 험준한 알산 능선과 조화롭기 위해 조금씩 각도를 달리하고 있어 다른데처럼 사방팔방 눈물리며 절구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준다. 천황문을 지나 무량수전까지 아홉 단의 석굴 돌계단은 극락세계에 이르는 과정(9층 만다라)을 형상화하고 있어 계단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극락세계로 향하는 희열감을 볼 수 있다. 마지막 계단위에 놓인 안양루에 올라 내려다보면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굽이굽이 솟아오른 연봉들이 무한대로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천하의 방방시인 김삿갓도 '인간 백세에 맞먹이나 이런 경치 구경할까' 하고 감탄할 정도다.

부석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문무왕16년(676)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래 1,300년을 넘게 한점 흐트러짐없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경내에는 무량수전과 석등을 비롯 국보 5점(조사당 19



◇부석사의 9단 석축과 안양루, 무량수전의 조화는 그 자체가 화엄세계다.

호암사는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지으려고 준비하던 도중 사라졌던 서까래를 찾아 세운 사찰이다. 날아온 서까래를 파인한 의상대사는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라 여기고 서까래가 놓인 자리에 초막을 짓고 수도한 후에 부석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현재의 초암사는 한국전쟁때 불타 없어진 것을 재건한 것이며, 경내에는 지방유형문화재인 3층석탑(126호)과 동·서부도(128·129호) 등이 있다. 초암사 입구에는 죽계계곡이 숨바꼭질하듯 펼쳐져 있다. 퇴계 이황선생이 이곳에 9개의 명소가 있다고 해 이름붙인 죽계계곡은 폭이 좁은 대신 아기자기한 멋이 가히 절경이다.

밀교신앙 옛물 운장대

상월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작은 보물처로 시작된 사찰. 지금도 좁은 산간지방을 따라 지리한 나한전(보물 832호)만이 극식을 갖출 뿐 곳곳에 작은 암자라도 같은 건물이 많다. 수도로서 매우 알맞은 이곳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할 뿐 크게 알려진 내력이 없다. 다만 나한전을 보수할 때 발견된 상량문이 '1553년에 처음 세웠고 80년뒤인 1634년에 중창했다'는 내용을 전해 사세가 끊이지 않고 민연히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나한전은 다르게 단순

소실됐다. 그러나 다형스럽게 관공이 소실되기 전에 찍어둔 〈훈민정음 언해본〉 판본 한권이 불탄 절터에서 발견돼 훈민정음의 창제내력을 밝혀주고 있다.

소백산이 예천방으로 흘러내려 이른 용문산에는 경전을 놓고 둘러싸서 예불하는 운장대(보물 684호)로 유명한 용문사가 있다. 조선시대의 학자 서경경이 '산이 깊어서 세속의 소란함이 끊어졌네'라고 할 정도로 아늑하고 포근한 사찰이었으나 1984년 불탄 이후 새로 전각을 세우면서 주변의 나무를 쳐내고 절마단을 넓게 닦아 산사의 기풍을 많이 잃어 버렸다. 현재 용문사는 보광명당이 본전이지만 연못은 그 동쪽에 있는 대장전(보물 145호)이 높다. 옛 맛을 느끼고 싶다면 화진문에서 해운루를 거쳐 절마당으로 들어설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 자운루 밑으로 해서 대장전을 바라보며 오르는 것이 낫다. 돌을 추스리고 대장전에 들어서면 목조삼존불상과 목각후불탱(보물 983호)이 환히 반긴다. 그 양쪽으로는 기둥갈기도 하고 작은 건물 같기도 한 운장대가 펼쳐져 있다. 석록의 운장대가 화려한 꽃창살인데 반해 동쪽의 운장대는 단아한 빛살문으로 이뤄져 대조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경전을 놓고 바깥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연자방아 돌리듯이 돌릴 수 있게 한 운장대는 밀교적인 정경신앙의 예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신라 불교문화 고스란히

죽령을 경계로 그 이남에는 고찰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이북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만 천태종의 흥분산 구인사가 자리하고 있어 일년내내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인사가 자리한 소백산 연화봉은 마치 연꽃잎이 중첩되어 있는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 기과는 계곡을 깎아 만든 경내에는 50여종의 건물들이 준비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1만여명의 신도가 동시에 법회를 가질 수 있는 5층짜리 대법당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흔히 죽령남쪽에 위치한 영주문화의 근간을 유교문화라 한다. 그러나 유교문화 훨씬 이전부터 불교문화의 뿌리가 이곳에 내려졌었다. 부석사를 비롯하여 소백산 자락의 10여개 사찰들은 이곳이 불국토임을 말해주고 있다. 경주로 수용되던 고대 불교문화는 죽령을 넘어 이곳에서 일거짐을 마친, 나름대로 소화된 후에 다시 경주로 전해져 찬란한 신라의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 문화의 양상도 변하지만 소백산자락에 쏘든 불교문화는 조금도 훼손됨이 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다.

글=임연태·윤기석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yjgo@buddhapha.com)

부석사 주축 화엄세계 열어

회방사 28m 물길 희방폭포 장관

구인사 연꽃지형 50동 당우 준비

아래의 비로사, 국망봉 남쪽 계곡의 초암사, 중턱의 상월사 등, 부석사를 빼고는 모두 규모도 작고 그리 유명하지 않아 조용하다. 그렇지만 절에서 바라보는 전망만큼은 부석사 못지않게 빼어나다. 특히 봉화의 죽서사는 기암을 축대위에 세워진 절이나 눈아래 산자락들이 가없이 펼쳐지는 풍경이 가히 작은 부석사라 불릴만하다.

의상대사의 사상은 화엄사상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부석사의 주불은 비로자나불이 아닌 아미타불이다. 의상대사는 아미타불을 화엄사상과 같은 일승(一乘)으로 이해할 동시에 열반에 들지 않고 생멸상이 없는 현재불로 파악했다. 온 우주를 포섭하는 화엄이라는 사상적 배경 위에서 극락정토의 현실화, 신라의 정토화를 꿈꿨던 것이다. 소백산 자락의 사찰들이 아미타불을 비로자나불과 함께 봉안하고 있는 것은 의상대사의 화엄 원융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주 부석사는 사시사철 연재 기법도 그 맛이 다르며 마주할 때마다 새로운 감회를 준다. 자연과 인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가람배치와 직선 부재를 사용하면서도 절제된 곡선을 보여주는 무량수전(국보 18호), 그리고 그 앞에서 화려한 조각수치를 자랑하는 석등(국보 17호) 등, 어느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부석사를 찾아가는 길은 온통 초여름을 흐르는 소리와 산새 울음소리 가득한 푸르름의 연속이다. 철쭉 초입부터 온몸 맑은 산내음이 풍긴다. 부석사의 함습

호, 소조불좌상 45호, 조사당벽화 46호)과 보물 4점(자인당 석조비로자나불좌상2기 보물 220호, 3층석탑 249호, 당간지주 255호, 고려각판 735호) 등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소백산 제1봉인 비로봉과 불과 3.5km에 위치한 비로사, 683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 사찰은 정감록의 심송지 가운데 첫 번째로 손꼽히는 풍기 금계동에서도 약 10km를 들어가는 길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다. 의상의 화엄사상을 이어받아 석조아미타불과 비로자나불(보물 996호)을 함께 봉안하고 있으며, 나말여초의 고승 진공대사의 부도비와 당간지주가 남아있다. 그러나 워낙 외지라 특별히 들보는 사람이 없어 당우는 퇴락할대로 퇴락했고 석불상의 공배와 석탑 등은 개척 절마당 한켠에 모아 놓은 상태다. 그러나 명할은 반드시 다시 서는 법, 최근 대웅보전을 새로 짓고 석불상을 개금해 안치했으며, 그 옆에 요사채를 새로 마련하고 있다. 지금 비로사는 비로사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용문사 운장대.

으며 산을 오르다보면 소백산 영봉에서 발견해 멋진 구비를 돌아 호르다가 천지를 진동하며 한바탕 장관을 이루는 희방폭포(높이 28m)가 나타난다. 마치 소백산의 영기를 내뿜어내는 듯 시원스레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려앉히는 풍경은 가히 소백산의 으뜸이라 할만하다. 신덕여왕 12년(643) 두운스님이 창건한 회방사는 조선 선조 원년(1568)에 만든 〈일인석보〉 판목 2백장을 보관하였던 사찰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몽고의 침입과 임진왜란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 관록들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작전상의 이유로 절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소백산자락 마애불

영주·봉화지방에는 7세기 초반의 우수한 마애불들이 많이 남아있다. 북지리 마애불(국보 201호)을 비롯 가흥동 마애삼존불(보물 221호), 신암리 사방불(보물 680호) 등은 절을 잃어버린 채 길가에 내버려져 있지만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성돼 서로 공통점을 지닌다.

하나는 고구려와 신라의 교종로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지리 마애불은 부석사와 연관되는 교종의 주요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흥동 마애삼존불은 영주를 가르치려는 서천을 굽어보는 자리에, 신암리 사방불은 영주와 봉화를 연결하는 길

고구려불교 신라 전래 과정서 조성 가흥동 삼존불, 은화한 얼굴 친근감

에 서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마애석굴과 같이 목조전실의 흔적이 있으며, 상호(얼굴)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등 북위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의 조각수법이 짙게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영주일대에는 영주동 석불입상, 석고리 석불입상, 휴천동 마애불좌상 등이 남아 있어 신라불교사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북지리마애불=두터운 입벽에 감실형 석실을 파고 원각에 가깝게 정도로 고부조로 새겼으나 감실의 윗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불상자제도 다

소 파괴됐으며 풍화까지 진행된 상태다. 기록에는 이 일대에 지림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나 확실치 않다. 불상 옆으로 남향한 바위에 불상과 탑들이 새겨져 있고 경복대바탕관에는 이곳에서 숭배된 거대한 반가사유상이 있어 대찰이 있었음을 분명하다.

■ 가흥동 마애삼존불=강가의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이 삼존불은 머리가 크고 인상이 매우 온화하다. 머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4등신 비례를 나타내 친근감을 준다. 그러나 바위 앞으로 바로 찾길 나 있어 맑고 밝고 비라불만한 자리가 없고 삼존불의 두 눈이 심하게 깨어 나간 상태로 받치



◇소백산 남쪽 지역에는 7세기 초반의 우수한 마애불이 산재해 있다. 사진은 영주 가흥동 마애삼존불.

때 있어 안타까움을 준다.

■ 신암리 사방불=바위 네면에 불상이 새겨진 사방불로 마멸이 다소 있지만 남쪽면의 삼존불만은 뚜렷하다. 풍문과 불에 귀염성 있는 친근한

얼굴이나 움직임 시무와 여인원의 수인 등이 고식(古式)을 나타낸다. 그러나 보좌각이 변변한 안대문 없이 길가 눈목 아래에 파묻혀 있어 보 호각 안에 물이 차 훼손이 우려된다.

용성스님 어록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도를 생각하리라.
 나는 무엇을 말할까?
 도를 말하리라.
 나는 무엇을 행할까?
 도를 행하리라.
 하야,
 도 생각하는 마음
 잠깐이라도 놓지 말지어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존중할지어다.



대성사(583-1475) · 대각사(765-0972) 경주 천통사(0561-748-8815)